



종합/사회

뉴스홈 > 사회

크게 작게 기사프린트 기사이메일

NEWS 많이 본 기사
이중국적자의 '두 얼굴'
"현금보조만 안받으면 OK"
한인여성 아파트서 권총차살
하버드 대학 세계 1위 스탠포드 2위
한인 집에 무장강도 주인 중상
서머타임 해제
비리혐의 조사 경관 대낮 길에서 권총
'물 마시기 대회' 닌텐도 위 타려다
UBS 비밀계좌에 재산도피 탈세혐의
한국, 통관 깐깐이

이산가족 눈물 닦아드릴게요

각계 한인 2세 50여명 참가다큐제작 나서

입력일자: 2009-10-30 (금)

"반세기를 넘게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1세들의 아픈 사연을 다룬 다큐멘터리 '이산가족'(Divided Families)을 한인 2세대들이 나서 제작하고 있어 화제다. 하버드 대학원생 제이슨 안씨를 중심으로 LA와 뉴욕 등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 50여명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디바이디드 패밀리스 필름'(Divided Families Film-DFF)가 그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재미 이산가족의 후손들로 영화를 전공했거나 영화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산가족들의 현실을 알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뚝뚝 땀 흘렸다.

DFF의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제이슨 안씨는 "지난 2006년 국제교육교류 장학생으로 한국에서 2년간 탈북자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이산가족문제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며 "특히 이산가족이었던 외할머니께서 가족 상봉의 꿈을 이루지 못하신 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미 이산가족의 안타까운 삶과 간절한 바람을 필름에 담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간 DFF는 내년 출시를 위해 회원들이 직장과 학업, 영화 제작을 병행하며 영화제작비용까지 손수 마련하고 있어 하루도 쉴 날이 없다.

제니퍼 전 DFF LA지부 공동 프로듀서는 "미국에는 약 10만명의 이산가족들이 존재하고 이들 대부분은 고령들로 가족상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다큐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들에게 가족이란 선물을 되돌려 드리고 싶은 게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전 프로듀서는 이어 "현재 뉴욕과 LA 지부에서 각각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뜻있는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

한편 DFF LA지부는 11월5일 LA다운타운 '블루 벨벳'에서 오후 8시부터 제작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를 갖는다.

문의 (213)500-0734, (310)428-0237

웹사이트 www.dividedfamilies.com



주인도 깜박한 고대 유물..

저렴한 인쇄물
칼라 명함
\$35
주요 연락처 목록
수신 번호

<양승진 기자>



11월5일 이산가족 다큐멘터리 제작 기금 모금 행사를 갖는 DFF LA지부 회원들이 한인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하고 있다. 맨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제니퍼 진, 원하리, 레슬리 선, 제인 김, 브라이언 정.

[홈으로](#) [회사안내](#) [게임월드](#) [한인업소](#) [구독신청](#) [배달사고접수](#) [Place an AD](#) [독자의견](#) [안내광고신청](#) [광고안내](#) [라디오서울 생방송](#)

 **한국일보**  
KOREATIMES.COM

THE KOREA TIMES  
소년한국일보

 **서울경제**  
hankook1.com

미주 한국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1997-2006 [Koreatime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FOR MORE INFORMATION